

해수부, 김 가격 안정을 위해 대표기업과 협력한다

-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, 국내 김 가격 안정을 위한 민·관 협력 당부
- 김 양식 면적 확대, 생산지 다변화, 마트·온라인몰 할인지원 등 추진

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3월 26일(화) 16시 서울 노량진수산물시장 대회의실에서 대표 김 기업 6개사*와 간담회를 개최한다.

* (주)동원F&B, CJ제일제당, 대상(주), (주)성경식품, 대천김(주), 충남마른김수협

지난해 세계적 소비 둔화 속에서도 우리 김 수출은 1조원을 넘어 세계 시장 1위를 굳건히 하였고, 올해 2월까지 김 수출량도 전년 동기간 대비 15.3% 증가하는 등 수출 호조를 보이고 있다.

다만, 김 수출 수요 증가에 따라 최근 들어 김 도매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, 김 수급·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김 가격 안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번 간담회를 마련하였다.

송 차관은 이날 회의에 참석한 업체 관계자들에게 “우리 김은 국내시장을 넘어 전 세계시장에서 사랑받는 글로벌 식품이 되었으며, 해양수산부는 김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생산 면적 확대, 생산지 다변화, 양식기술 고도화 등 수급 관리를 지원하는 한편, 국민 여러분이 김을 부담없이 구매할 수 있도록 3월부터 온라인·마트 할인행사 품목에 마른김을 추가하여 할인을 지원하고 있다.”라며, “앞으로도 김 가격 안정을 위해서 대표 기업들의 동참과 협력이 필요하다.”라고 말할 예정이다.

담당 부서	어촌양식정책관	책임자	과 장	박승준 (044-200-5940)
	어촌양식정책과	담당자	사무관	이예진 (044-200-5805)
담당 부서	수산정책관	책임자	과 장	정기원 (044-200-5440)
	유통정책과	담당자	서기관	정재훈 (044-200-5447)
담당 부서	수산정책관	책임자	과 장	강희정 (044-200-5480)
	수출가공진흥과	담당자	사무관	장용호 (044-200-5481)